

찰스 로드 32점·11R... “4강 PO 직행 팔로미”



인천 전자랜드 외국인선수 찰스 로드(오른쪽)가 10일 전주체육관에서 열린 전주 KCC와의 프로농구 5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하승진과의 경쟁을 뚫고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있다. 이날 32득점을 뽑은 로드의 활약 속에 전자랜드는 2위를 수성하며 선두 추격에 박차를 가했다. 사진제공 | KBL

신장 좋은 포워드이 이정현 수비 효과 선두 울산모비스에 3.5게임차 추격전



인천 전자랜드가 탄탄한 팀워크를 앞세워 팀 시즌 최다인 6연승을 거두며 4강 플레이오프(PO)에 직행할 수 있는 2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

전자랜드는 10일 전주체육관에서 벌어진 '2018~2019 SKT 5GX 프로농구' 정규리그 5라운드 전주 KCC와의 원정경기에서 32점·11리바운드를 기록한 외국인선수 찰스 로드 등 선수들의 고른 활약으로 94-82로 승리했다. 이번 시즌 팀 최다인 6연승을 기록한 전자랜드(29승13패)는 2위를 유지하며 리그 선두 울산 현대모비스(33승10패)와의 격차를 3.5경기로 줄였다. KCC(21승22패)는 5연패에 빠져 같은 시간 열린 홈경기에서 연장 끝에 서울 SK에게 89-84로 이긴 원주 DB에게 공동 6위를 허용했다.

KCC를 상대로 3연승을 기록했던 전자랜드는 지난달 23일 열린 시즌 4번째 맞대결에서는 84-92로 패했다. KCC의 공격을 책임지는 브랜든 브라운과 이정현 봉쇄에 실패한 탓이 컸다. 전자랜드 유도훈 감독은 10일 경기에 앞서 “수비에서 두 선수들의 득점을 줄이는 쪽으로 준비를 했다. 특히 이정현에게는 발이 빠른 선수보다 신장

이 좋은 선수를 붙여볼 생각이다”라고 수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자랜드는 신장이 좋은 포워드 김상규(7점)와 정효근(5점)에게 이정현(20점)의 수비를 맡겼다. 브라운에 대해서는 국내 선수에게 맡기는 대신 골밑으로 들어오면 적극 도움수비를 펼치는 쪽으로 준비했다. 이 전략이 3쿼터 중반까지 효과를 보면서 KCC의 득점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했다. 공격에서는 경기 시작 직후 신인 전현우(8점)가 3점슛 2개 포함 8점을 연속 책임져 순조롭게 출발했고, 로드가 내·외곽에서 득점포를 뿜어냈다. 국내 최장신 센터 하승진을 상대로 3점슛까지 터트리면서 KCC가 준비한 수비를 완전히 흐트러뜨렸다.

3쿼터 종료 2분여를 남기고 73-49로 24점차까지 달아난 전자랜드는 방심한 탓인지 4쿼터 시작 직후 1분여 만에 73-62, 11점차 추격을 허용했다. 작전타임을 통해 KCC의 흐름을 끊은 전자랜드는 3쿼터까지 6점으로 추축했던 기디 팻츠(11점)가 공격 리바운드에 이은 2점을 성공해 한숨을 돌렸다. 이어진 공격에서 팻츠가 정확한 3점슛을 림에 적중시켜 78-62로 다시 도망가는데 성공했다. 이후에도 KCC가 강하게 나왔지만 로드가 필요할 때마다 골밑에서 공격을 시도해 득점 혹은 자유투를 뺏아내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전주 | 최용석 기자 ghyong@donga.com



수잔 솔팅

괴물 모드 ‘수잔 솔팅’ 한국 여자쇼트트랙 위협

월드컵시리즈 금메달 6개 강한 멘탈·피지컬도 탁월

한국 여자쇼트트랙은 세계 최강이었다. 최민정(성남시청)과 심석희(한국체대)의 투 톱 체제가 굳건하고 김지유(폴핑팀)의 상승세도 무섭다. 특히 1000~1500m 중장거리 종목에선 적수가 없다. 캐나다와 중국의 공세가 거셌지만, 늘 우리를 불식시켰다.

그러나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판도가 바뀌었다. 유럽의 강세가 뚜렷하다. 네덜란드와 러시아, 헝가리 등 그간 쇼트트랙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국가의 선수들이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수잔 솔팅(네덜란드)이 중심에 있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 2018~2019시즌 쇼트트랙 월드컵시리즈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괴물급’이라는 평가가 어색하지 않다. 1000m는 5차례 가운데 네 차례 석권했고, 1500m에서도 금메달 2개를 거머쥐었다. 3차 대회(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선 취약종목인 500m에서도 은메달을 따냈다. 한국 여자쇼트트랙의 간판인 최민정과 심석희가 ‘여제’로 등극한 행보를 그대로 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솔팅이 평창올림픽 1000m에서 금메달을 따냈을 때만 해도 운이 따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지만, 상승세는 좀처럼 꺾일 줄 모른다. 솔팅은 170cm·65kg의 피지컬을 자랑한다. 스케이팅 기술뿐만 아니라 웨이트트레이닝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근력이 워낙 뛰어나 몸싸움에 강하다. 게다가 스케이팅의 기본기가 타고난 네덜란드 선수들의 특성에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 안 한다”는 마인드도 강점이다.

1998나가노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상미 MBC 쇼트트랙 해설위원은 “(솔팅의) 피지컬과 네덜란드 코치진의 체계적인 지도가 만든 결과라고 본다. 장비의 발전도 한몫 했다. 페이스가 워낙 좋다. 앞으로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제 여자대표팀은 도전자의 입장에서 솔팅을 넘어셔야 할 상황이다.

바이호르 쇼트트랙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뒷심의 삼성생명...마지막에 웃었다

배혜운, 4Q 극적 동점골 승부 원점 2차 연장 끝에 OK저축 꺾고 3연승



삼성생명이 OK저축은 행을 2차 연장 접전 끝에 물리치고 3연승을 달렸다.

삼성생명은 10일 용인체육관에서 열린 '우리는행 2018~2019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OK저축은행과의 홈경기에서 2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89-81로 승리를 거뒀다. 3연승을 기록한 삼성생명은 시즌 16승(11패)째를 거뒀다.

3위 삼성생명은 KB스타즈(1위)와 우리은행(2위)의 2강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경기는 삼성생명의 저력을 보여준 한 판이었다. 3쿼터까지만 해도 삼성생명은 한수 아래 전력의 OK저축은행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3쿼터까지는 졸전이었다. 쉬운 공격 찬스를 번번이 놓치고 10개의 실책을 저지르며 상대에게 쉽게 공격권을 내줬다. 2점슛 성공률이 34%(10/29)에 그칠 정도로 공격 효율성도 떨어졌다. 외국인선수 티아나 하킨스(11점·14리바운드)는 4점에 머물렀다.

한 시즌을 치르면서 매년 좋은 경기력을 유지할 수는 없다. 최상의 경기력이 나오는 경기가 있는 반면, 졸전을 펼칠 수도 있다. 강팀의 조건은 졸전을 치르는 가운데에서도 승리만큼은 놓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3쿼터까지 부진했던 삼성생명은 4쿼터

에 집중력을 발휘했다. 박하나(22점·7어시스트)와 김한별(14점·9리바운드)에 이어 경기 내내 고전을 면치 못했던 하킨스까지 득점에 가세했다. 삼성생명은 4쿼터 종료 0.5초전 배혜운(26점·5어시스트)의 골밑슛으로 69-69의 동점을 만들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1차 연장으로는 승부가 나지 않았다. 77-77의 상황에서 2차 연장을 맞은 삼성생명은 김한별, 배혜운, 하킨스, 박하나가 집요하게 상대 골밑을 공략하면서 어렵게 승리를 챙겼다.

무릎부상으로 최근 두 경기를 결장한 박하나를 복귀전에서 3점슛 5개 포함, 22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의 일등공신이 됐다. OK저축은행은 구슬(15점·17리바운드)이 자신의 한 경기 최다리바운드 기록을 갈아치웠지만, 삼성생명의 뒷심을 당해내지 못했다.

용인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삼성생명 박하나(왼쪽)가 10일 용인체육관에서 열린 OK저축은행과의 홈경기에서 이소희의 마크를 피해 골밑슛을 던지고 있다. 초반 잦은 실책으로 불안했던 삼성생명은 2차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3연승을 달렸다. 사진제공 | WKBL

삼성만 만나면 힘이 솟는 KGC

삼성 상대 7연승 이어가...2연패 끝 8위 KGC, 공동 6위 그룹과 1경기차

안양 KGC가 2연패 사슬을 끊어내고 6강 플레이오프(PO) 진출을 향한 희망을 이어갔다.

KGC는 10일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2018~2019 SKT 5GX 프로농구' 5라운드 서울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86-78로 이기고 올 시즌 삼성과의 5차례 맞대결을 모두 승리로 장식했다. 반면 삼성은 시즌 팀 최다인 8연패에 빠졌다.

승기는 이미 1쿼터부터 KGC 쪽으로 넘어와 있었다. 삼성이 경기 초반부터 실책을 남발하며 자멸했기 때문이다.

최근 7연패에 부진을 겪었던 삼성 이상민 감독은 KGC전을 앞두고 급격히 저조해진 득점력을 연패의 원인으로 꼽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삼성의 발목을 잡았다. 초반부터 남발된 턴오버가 패인이었다. KB L 역대 한 쿼터 최다 턴오버인 12개(2012년 10월 13일 원주 동부)에 육박하는

실책 10개를 범한 삼성은 흐름을 일찌감치 내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간 삼성과 달리 KGC는 상대의 연이은 실수를 틈타 손쉽게 승리를 챙겼다. 2쿼터까지 국내 선수들과 외국인 선수들이 고루 득점을 올리며 전반을 44-22 더블 스코어 차로 마쳤고, 3쿼터 막판 거세진 삼성의 추격을 문성곤이 연속 3점슛으로 잠재웠다. 지난달 말 국군체육부대(상무)에서 전역 복귀한 문성곤은 외곽포 4개를 포함해 22점을 올렸고, 최현민이 10점으로 힘을 보탤었다.

2017~2018시즌부터 계속된 삼성전 연승 행진 숫자를 '7'로 늘린 KGC는 6강행 희망도 부풀렸다. 같은 날 6위 전주 KCC가 인천 전자랜드와 홈경기에서 82-94로 패하고, 7위 원주 DB가 서울 SK를 연장 끝에 89-84로 꺾으면서 DB와 KCC는 공동 6위(21승22패)가 됐는데, KGC가 이날 승리로 20승23패를 기록하면서 공동 6위 그룹과 격차는 한 경기가 됐다.

잠실 | 곽봉준 기자 shutout@donga.com